

국제수산월간동향

2020. 12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1. 에콰도르 오징어 공해 조업 허가, 5억 달러 가치창출 기대
2. 방글라데시 새우 수출 8.7 퍼센트 하락
3. WCPFC 총회, 태평양 참치 현행 TAC 유지
4. 미국, 중국어선이 태평양의 심각한 IUU어업 문제의 원인이라 언급
5. 중국 푸저우시, 국가 원양어업기지 건설 '초읽기' 돌입
6. ISSF, 세계 참치 자원 문제없다고 보고
7. IPNLF, IOTC에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8. 중국 기업-파푸아뉴기니(PNG) 수산 인프라 공동 개발
9. 일본, 남극해 고래류 자원조사선 출항
10. NOAA, 자국 업자들을 위한 수산물 교역 프로그램 제공
11. ISSF, 세계 다랑어 자원상태 보고서 발표

□ 에콰도르의 공해 오징어조업 허가

- 에콰도르는 부장급 회의를 통해 수공업, 공업어선이 남태평양 공해에서 대왕오징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의 보고서 공개
- 어선들이 공해 조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물 통계관련 업무를 책임질 읍자비가 필요하며 조업시에는 GPS시스템을 상시 켜두어야 함
- 에콰도르 외교부 장관 Luis Gallegos는 “에콰도르는 조업한 오징어를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며 업계도 더 확대된 오징어 시장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지금까지 에콰도르의 대왕오징어 조업장은 주로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였고 에콰도르 부근 공해 오징어 조업은 아시아 국가 어선이 대부분을 차지
- 에콰도르는 공해까지 조업장을 확장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4~5억 달러의 오징어 수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에콰도르 국가어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매년 16억 달러의 해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 85%가 다량어이고 이를 통해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출처: 수산양식망¹⁾

1) http://www.shuichan.cc/news_view-411024.html (20년 12월 11일 검색)

□ 수출액 증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방글라데시는 양질의 새우 수출을 통한 수입매출이 늘어날 잠재력이 많은 국가임에도 적절한 정책지원이 없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20-21 회계연도 7월부터 11월 사이 방글라데시 새우 수출은 8.76 퍼센트 하락하여 수출액이 2019-20 회계연도 약 178 백만 달러에서 163 백만 달러로 감소함
- 사실 방글라데시 새우는 세계 수요가 높아 평판이 좋음에도 새우양식 수출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새우양식 경쟁국인 베트남의 더 저렴한 새우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많은 내부 문제로 인하여 새우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글라데시 수출업자들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음
- 한 예로, 냉동 어류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암모니아 가스 가격(50kg 실린더 당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 두 배로 뛰어 공급이 부족함
- 방글라데시 국내 새우 소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 시장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 국민 소득이 높아지며 구매력이 증가하자 국내 시장에서 새우 수요도 늘어남
- 한 새우양식 관계자는 정부가 새우 양식업자들에게 은행 대출 조건을 완화해준다면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함
- 이에 더해 방글라데시 새우의 큰 시장 중 하나인 영국이 브렉시트 사태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새우 수출 시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바나메이(Vannamei) 새우의 국제 가격은 2~2.5 달러 정도로 블랙타이거(black tiger) 새우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 중임
- 바그다(Bagda)와 갈다(Galda) 새우의 마리당 가격은 바나메이 새우 수요 증가로 6~8 달러로 하락함
- 방글라데시 냉동식품수출협회(BFFEA)는 정부에게 양식업자 지원금을 10 퍼센트 상승을 설득하고 있음
- 새우 수출 잠재력이 큰 국가임에도 방글라데시는 새우 산업에 투자할 외국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방글라데시는 거대한 인력을 갖추어 낮은 인건비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만큼, 외국 투자자들이 방글라데시 투자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갖추
-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원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사 출처: fis.com²⁾

출처 :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5&id=110822&f=e&country=0&special=&ndb=1&df=0>
(20년 12월 16일)

□ WCPFC 총회, 차기 관리조치 결정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제17차 총회가 9~15일, 온라인 회의로 개최됨
- 10월에 개최된 WCPFC 북소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채택하는 형태로 내년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TAC 는 올해와 동일한 양
 - 일본은 소형어 4007톤, 대형어 4882톤으로 결정
 - 관리조치는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
- **(합의된 내용)** TAC를 올해와 동일한 양으로 하면서, 올해와 동일하게 각국의 남은 어획분의 이월 비율을 종래의 5%에서 17%로 증가시키는 것과, 소형어 (30km 미만)의 TAC에서 대형어의 TAC로 대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부분
- 또한,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자원관리조치에 대해서 내년 어기도 현행 조업일수, 집어장치 (FADs)의 개수 제한을 계속할 것으로 합의
- WCPFC 총회는 일본을 포함한 26개국, 지역에서 참가, 일본대표로써 수산청 자원관리부 오타 싱고 심의관이 출석

※ 기사 출처: 미나토 신문³⁾

3)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7526> (20년 12월 16일)

4 미국, 중국 어선이 태평양의 심각한 IUU어업 문제의 원인이라 언급

- 중국이 IUU어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한 미국
 - 최근 미국 국무원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 조업 선대가 태평양 IUU어업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 지칭
 - 중국은 연안국의 자원과 양식, 근본질서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도 언급
- 중국 외교부 반응
 -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중국은 책임 있는 어업국가로 과학적인 생물자원 보호와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전 세계 어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 태도로 지역 국가와 오랜 기간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 및 다자간 어업협정의 의무, 지역 어업조직의 보존조치를 엄격히 이행함으로써 각 어업관리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설명
 - 최근 중국은 원양어업이행백서(2020)를 발간하여 중국의 원양어업 관리원칙과 입장을 소개하고 정책 조치와 이행 성과를 공개함
 - 이러한 중국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임
 - 미국은 IUU어업 문제를 정치화시켜 전 세계 IUU어업퇴치를 방해하고 있는 바 이는 해양환경보호와 지속적인 어업 국제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발언을 명백히 반대할 것을 촉구함

※ 출처: 환구망4)

4) <https://baijiahao.baidu.com/s?id=1685044973869308061&wfr=spider&for=pc> (20년 12월 14일 검색)

5 푸저우시 국가원양어업기지 건설 ‘초읽기’ 돌입

- 원양어업발전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가원양어업기지 건설
 - 푸저우시는 중국 원양어업 종합 역량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로 원양어업기업 13개, 원양어선 432척 보유
 - 농업농촌부는 저장성 저우산시, 산둥성 롱청시(다량어)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국가급 원양어업 기지를 만들기 위해 푸저우시를 선정
 - 푸저우시 원양어업기지의 총 면적은 1628.33헥타르, 투자 규모 약 230억 위안(약 4조) 예측
 - 푸저우시에 현대화된 원양어업 국제항구를 건설하고 원양어업 수산물 정밀가공단지, 해양생물 산업단지, 국제 원양수산물 교역센터, 국제 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센터 등 1개 국제 어항, 2개 산업단지, 3개 센터를 건설할 예정
 - 원양어업 기지 건설은 새로운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사업 초기 설계는 이미 심사단계에 있으며 핵심 구역의 도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중
 - 앞으로 푸저우시는 ‘해양 푸저우’라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순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해양 경제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 것
 - 2025년까지 푸저우시 해양 생산총액 목표는 4250억 위안이며 전면적인 해양경제 발전을 주도하여 중국의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

※ 출처: 텅쉰망5)

5) <https://new.qq.com/rain/a/20201207A02HZR00> (20년 12월 14일 검색)

- ISSF 상태보고서에 87%의 다랑어의 상업적 어획은 건강한 풍족 수준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언급
-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가 과학자, 참치 업계, WWF와 협력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전 세계 참치 중 10%는 남획되는 자원에서, 3%는 중간 풍족 수준의 자원에서 어획된다고 보고함.
- 총어획량의 87%는 건강한 수준의 자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준수한 상태의 가다랑어 자원이 세계 참치 어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반면, 태평양의 참다랑어와 인도양의 황다랑어, 눈다랑어는 남획되어 총어획량 중 10%를 차지함.
- 2020년 3월 재단 보고서에서 동태평양의 눈다랑어 풍족 수준을 "녹색"에서 "황색"으로 하향하여 이를 주목하고 있지만, 동태평양 눈다랑어의 어류 폐사율은 개선되었음.
- 동태평양 황다랑어의 어류 폐사율과 풍족 수준은 "주황색"에서 "녹색"으로 상향되었고, 이는 자원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임.
- 재단 보고서는 또한 2018년 주요 상업 참치 자원의 어획량은 5.2백만 톤에 달하며 2017년 대비 8% 상승했다고 보고하였고, 가장 많이 어획되는 참치는 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서부태평양 황다랑어, 인도양 가다랑어, 인도양 황다랑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로 동일함.
- 다랑어 어획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구는 선망선이 65%를 차지하며 연승, 채낚기, 자망, 잡어구 등이 많이 사용됨.

※ 출처: Seafoodsource.com ⁶⁾

6) <https://www.seafoodsource.com/national-fisherman/seafood-sustainability-foundation-reports-most-world-tuna-stocks-in-good-shape>
(20년 12월 17일 검색)

- 황다랑어 자원을 회복하고 소규모 어업인과 연안 공동체의 생계를 고려할 것을 촉구
 - 국제연승어업재단(IPNLF)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2021년 3월 특별 회의 시 과도 어획되는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의 회복을 논의하도록 촉구함.
 - 인도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어장으로 전 세계 참치 생산의 20%가량을 차지하며, 참치는 소비자 시장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단백질 공급과 연안 공동체의 소득의 원천임.
 - 2015년부터 과도 어획되고 있다고 분류된 인도양 황다랑어는 2016년부터 자원 회복 계획의 대상이었지만, 효과 없는 이행, 조업 국가들의 기존 조치 미이행, 황다랑어 치어 폐사율 증가를 가져오는 FAD의 관리 소홀 등으로 그 효과성이 저해되었고 남획상태(overfished)가 유지됨.
 - 2021년 초 예정된 특별 회의에서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관리조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
 - 선망 어선의 부유식 FAD의 광범위한 사용은 황다랑어의 남획 문제의 주요 원인인데, 수천 개의 장치가 인도양에 매년 배치되고 있음.
 - 이러한 FAD는 상어나 바다거북과 같은 취약한 비목표 종의 부수 어획에도 연관이 있음.
 - IPNLF는 내년 특별 회의에서 IOTC 회원국에 IOTC 과학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황다랑어 총어획량의 20% 감소에 동의하고, 기존의 보존관리조치를 개정하여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함.

- IPNLF은 또한 인도양의 선망선이 배치한 대량의 부유식 FAD의 영향을 받는 황다랑어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말까지 FAD 설치 및 회수를 지원하는 모든 공급선박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한 선망선이 운영하는 FAD의 수를 300개에서 200개로 축소하며, FAD 배정, 설치, 회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IPNLF 측은 IOTC가 가다랑어 수확통제규칙을 채택했을 때와 같이 황다랑어에 대한 강력한 관리조치를 수립하여 과도어획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fis.com 7)

7)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country=0&special=&monthyear=&day=&id=110859&ndb=1&df=0>
(20년 12월 17일 검색)

8

중국 기업-파푸아뉴기니(PNG) 수산 인프라 공동 개발

□ PNG 신규 수산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 계약 체결

- 중국 기업 Fujian Zhong Hong Yu Ye Co. 와 PNG 수산부장관 Lino Tom, PNG 서부 주지사 Taboi Yoto가 수산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함
- 동 수산산업단지의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랑어 수산업에 관한 PNG 정부의 요구사항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PNG 수도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에 위치한 PNG 수산 당국은 다랑어 처리산업 기반을 건설할 투자자를 찾아왔음
- PNG 다랑어 어획물은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에게 횡감으로, 필리핀에 처리 공정을 위해 수출해옴
- 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주 PNG 중국 대사 Xue Bing은 본 인프라 개발 계약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 PNG의 큰 기회라 말함
- PNG는 지난 몇 년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해왔고, Xue 대사가 지난 6월 PNG 수산물의 중국 직접 수출을 허락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음
- 사실 중국 일부 기업이 PNG 내 사업 확대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협약에 대한 관심은 PNG와 중국 모두에게 비슷한 상황임
- PNG의 전통적 우호국인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나빠짐에도 PNG James Marape 총리는 작년부터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오고 있음

출처: www.seafoodsource.com 8)

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ese-fishery-firm-signs-deal-with-papua-new-guinea> (20년 12월 15일 검색)

□ 일본고래류연구소, 조사선 출항

- 일본수산청은 12월 4일, 남극해 고래류 자원 조사 (비치사적 조사) 조사선을 미야기현 시오카마 항에서 출항시킴
- 조사 주체는 일본고래류연구소, 조사기간은 '20년 12월 4일부터 '21년 3월 22일까지 예정
- 작년 조사 포경 종료 후, 남극해 고래류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조사를 고래류 포획을 하지 않는 형태로 계속하고 있음
- 이번 조사에 사용하는 것은 제2 유신마루 (747톤), 남극해에서의 대형 고래류 자원량 추정, 분포, 회유와 개체군 구조 등의 추정이 목적
- 자원량 추정에 필요한 목시 데이터 수집, 자연 표식 촬영, 피부편 (이식을 위하여 피하 구조에서 외과적으로 분리된, 혈관을 가진 피부나 다른 조직) 시료 채집 등을 실시
- 조사 결과는 국제포경위원회 (IWC) 과학위원회 등의 국제기관에 제공

출처: 미나토 신문⁹⁾

9) 출처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7191> (20년 12월 18일 검색)

- 미국 NOAA는 국내 수산물 교역업자들이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때 해당 수산물과 관련한 감시·통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출시했음.
- 미국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의 85% 이상이 해외에서 가공을 거친 후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 수산물 교역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은 교역업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NOAA에 의해 규율되는 교역 감시 제도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함.
- Atuna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용자 친화적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보았음. 프로그램은 상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방, 국가 및 지역 규제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NOAA의 교역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종들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통보함. 그 후, 사용자들은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것인지를 시스템에서 선택할 수 있음. 그 후, 다랑어, 전복, 해삼 등 수산물의 종류를 선택하게 됨. 다랑어의 경우, 가다랑어와 같이 어종을 선택하고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을 또한 선택할 수 있음. (선어, 냉동, 밀폐 컨테이너 포장, 케이크, 또는 동물 사료 등)
- 프로그램은 해당 수산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수산물 교역 프로그램에 의한 단계별 과정과 관련 정보가 매우 유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NOAA는 현재 미국의 수산물 교역에 대한 보고 및 기록작성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4개의 교역 감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음.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수입 수산물 감시 프로그램(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으로서, 2018년에 시작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IUU 어업 또는 수산물 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13개의 어종 및 어종그룹에 초점을 두고 있음. 수산 당국은 국내 통조림 생산과 전국의 모든 냉동 및 가공된 다랑어 상품의 수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랑어 추적 및 검증 프로그램을 또한 사용하고 있음. 이는 어느 상품이 돌고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함.

※ 출처: atuna.com 10)

10) <https://atuna.com/news/new-noaa-seafood-online-tool-to-aid-tuna-traders?highlight=WyJub2FhIiwibm9hYSdzIl0=>
(20년 12월 16일 검색)

- 최근 국제수산물 지속가능성재단(ISSF)은 세계 다랑어 자원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세 개의 다랑어 자원이 초과어획 상태에 있고, 그 산란자원량이 적절히 보충되고 있지 않음. 한편, 모든 해역에서 가 다랑어는 건강한 상태에 있음.
- 이 보고서는 세계 23개의 주요 상업적 다랑어 자원에 관한 최신의 데이터를 요약하고 있음. 23개 자원은 6개의 날개다랑어 자원, 4개의 눈다랑어, 참다랑어, 황다랑어 자원, 그리고 5개의 가다랑어 자원임. 보고서는 또한 RFMO들에 의해서 채택된 현행 관리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함.
- 보고서는 풍부도(또는 산란자원량, SSB)의 관점에서, 23개의 자원 중 13%는 초과어획 상태에 있고, 22%는 중간 상태이고, 나머지 65%는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함. 산란자원량(SSB)은 자원상태 및 재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 또한, 전세계 다랑어 자원의 74%는 잘 관리된 어업폐사율(F) 수준에 있음. 어업 폐사율(F)은 자원의 어획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함. 한편, 22%의 자원은 초과어획 상태에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 참다랑어, 대서양 눈다랑어, 그리고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이 특히 심각한 상태에 있음. 3개 자원 모두 SSB와 F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 인도양 황다랑어는 주로 선망선(36%)에 의해 어획되고 있음. 2018년 자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다랑어는 초과어획 상태에 있고 현재도 과도어획 중임. 최근 IOTC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5일간의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IOTC 회원국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NGO들에 의한 국제적인 압력과 영국과 EU의 소매업자들이 인도양의 황다랑어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대서양에서, 눈다랑어는 주로 연승에 의해 어획되고, 선망과 채낚기가 그 뒤를 이음. 최근 몇 년간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산란자원량은 자원회복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가장 최근의 ICCAT 자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서양 눈다랑어는 초과어획 상태에 있고 과도어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함. 2020년의 TAC는 62,500톤이고 2021년의 TAC는 61,500톤임. 장기간 계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최대 지속가능한 생산량(MSY)은 76,232톤임. 하지만, 2019년에는 74,100톤이 어획되었음.
- 연례회의 대신에, ICCAT은 11월 초부터 이메일 회의를 개최했음. 눈다랑어 TAC는 일부 국가들이 감축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연장되었음. 2023년 까지 관리절차를 채택하기 위한 목적으로 눈다랑어, 황다랑어, 동부 가다랑어 보존을 위한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1주일간의 회의가 개최될 내년 6월에 개최될 예정임.
- 서부 대서양 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우려가 있으나, ISSF 보고서에는 산란자원량이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MSY 추정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과도어획은 일어나고 있지 않음.
- 태평양 참다랑어는 대부분 서부 태평양에서 어획되고 있음. 2020년 자원평가 결과는 이 자원이 심각한 초과어획 상태에 있고 산란자원량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함. 어업폐사율이 감소하였으나, 자원량은 LRP(한계 기준점) 훨씬 아래에 있고, 이는 이 어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함. ISSF는 따라서, SSB와 F에 대해 모두 주황색 등급을 부여했음.

- 동부 태평양의 경우, 눈다랑어는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등급이 낮아졌는데, 이는 이 자원이 MSY 수준에서 홍보하기만 하였기 때문임. 이 자원의 어업폐사율은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이는 비록 어획수준이 MSY를 초과하고 있지만, HCR과 같은 적절한 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조치로 과도어획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일부 NGO들이 동부 태평양과 인도양 가다랑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해역에서 가다랑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슈도 없다고 함. 풍부도와 어업폐사율의 관점에서 녹색 상태임. 전 세계 어획의 55%가 이루어지는 중서부 태평양에서,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는 어획량과 산란자원량의 측면에서 잘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눈다랑어의 경우, 부수어획과 환경 부문에서, 감시가 부족한 연승에 의해 45%의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인해 주황색 등급이 부여되었음.
- 중서부 태평양 황다랑어는 연승에 의한 부적절한 감시와 23%의 어획을 차지하는 자망과 같은 어구의 비목표종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주황색 등급을 받았음.

※ 출처: atuna.com 11)

11) <https://atuna.com/news/ssf-three-globatuna-stocks-in-the-red?highlight=Wp3NriwaNz3dwiwNz3d29r2YchF03WUw0z2YlCp3Nra3NaXNDWUWp3G06id>
(20년 12월 12일 검색)